

전남도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탄력

내년도 정부예산안

백신 인력·플라스틱 자원화 등

전략산업 2141억 대거 확보

전남도가 내년 정부예산안에 지역 전략산업 분야 2141억원을 대거 반영시키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예산안을 긴축 기조로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단형 초임계(S) CO2 발전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등 8건(예산 244억원)의 신규사업을 반영한 것도 고무적이다.

주요 사업은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 및 순환경제 실현과 관련 탄소중립도시형 생분해 플라스틱 자원화플랜트 실증 기술개발(20억원), 고성능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평가·인증 기반구축(20억원) 등이 신규로 포함돼 우수석유화학산업과 연계한 생

분해 및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육성과 신규시장 선점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 의약품 기업 등의 백신 전문인력 수요 급증과 관련해서도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백신 특화 공정인력 양성사업(20억원) 역시 내년부터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계속사업으로 mRNA 백신 실증지원 기반구축(56억원),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30억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건립(158억원) 등의 계속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지원과 관련해서는 나주 에너지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운영(20억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10억원), 미래 교통수단의 역할을 할 드론과 항공 분야는 드론 활용 남해안권 통합 모니터링 기반 구축사업(신규, 30억원),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 자율비행 핵심기술 및 비행안전성 운용성 시험평가(75억원) 등도 반영됐다.

e-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분야에서는 초소형 e-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지원기반구축(34억원), 조선 분야에서는 중소형 선박 고속엔진 수리·진단·관리체계 구축사업(신규, 15억원), LNG 극저온 단일시스템 국산화 실증센터 구축(56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18억원)과 수송기비용 마그네슘 소재 실증기반 조성(23억원), 폐플라스틱 자원화 소재개발 및 실증기반 조성(24억원) 등도 반영돼 전남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 철강석유화학 산업 개조 등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내년 정부예산안에 매우 의미 있는 지역 전략산업 분야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미반영 사업이 반영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세이브더칠드런 아동 삶의 질 향상 협약

지역아동센터 30여개소

환경개선 등 5억4000만원 지원

전남도가 지난 19일 도청에서 세이브더칠드런과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 개선과 권리 향상 사업 등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 김정의 전남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이날 협약은 어린이가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고 참여권 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공동사업 홍보를 함께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세이브더칠드런은 도내 지역아동센터 30여개소에 총 5억4000만원을 지원해 전남지역아동센터를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개선하는 리모델링과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의 아동권리 증진활동에 필요한 공



동사업 홍보와 참여모집 등을 지원한다. 문금주 부지사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전남지역아동센터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아동 삶의 질 향상에 큰 힘을 보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미래의 주인이자 희망인 아이들의 행복한 삶과 권리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대출금 상환 유예

96억원...128농가 부담 완화

전남도가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커지는 축산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녹색축산육성기금 대출금 원금 상환을 1년 동안 유예한다.

이는 최근 배합사료 가격과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가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안정적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상환유예 대상은 축사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받아 올해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 사이 상환일이 도래할 예정인 축산농가와 농업법인이다. 128농가가 96억원의 상환유예 혜택을 받는다.

원금 상환 연장을 바라던 사업장 소재지 사군 축산부서에 오는 23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대출 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에 융자받은 은행(NH농협은행 또는 광주은행)에 반드시 방문해 상환 유예

를 위한 대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거지 기간 중인 대출금은 적용되지 않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부적합 시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곡물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축산물 생산비가 크게 올라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금 원금 상환 유예가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축산인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친환경축산을 통한 축산 소득증대를 위해 축사시설 및 축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업자 등을 대상으로 30억원까지 연리 1%로 녹색축산육성기금을 중장기 융자 지원하고 있다. 융자 규모는 매년 200억원이고, 상환 조건은 운영자금의 경우 2년거치 3년상환), 시설자금은 2년거치 8년상환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청소년미래재단과

청소년 건강한 성장 협약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최근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중국 장시성과의 비대면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등 기존 사업 외에도 ▲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보 교류 ▲사회적 돌봄 청소년의 연계·의뢰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회적 돌봄 청소년 대상 장학사업 ▲청소년 안전망 운영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해서 협력할 예정이다.

고석규 원장은 "인재는 전남의 미래이고, 청소년은 전남의 미래를 이끌 주역"이라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민선8기 전남 비전에 맞춰 지역 청소년이 '세계로 대도약하는 글로벌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청소년미래재단과 다방면에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기존 전남인재육성재단과 전남평생교육기관이 2020년 7월 통합

해 새롭게 출범한 도 출연기관이다. 인평원은 각종 장학사업을 비롯해 전남도 브랜드사업인 '새천년 인재육성프로젝트', 지역 평생교육사업, 전국평생교육기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도민 불편 해소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 18건 선정

전남도 '산후조리 보파리'·강진군 '청년에게서 해답...' 최우수상

전남도가 도민 일상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 18건을 선정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한 달 보름여 동안 '2022년 상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진행했다. 경진대회에는 전남도 전 부서, 22개 시군, 지방공사 및 공단을 대상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총 57건의 사례가 접수해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총 22건의 본선 진출사례를 선정한 후 도민이 함께한 심사를 통해 18건의 우수사례를 확정했다.

도민 심사에는 ON(온)국민소통(구 광화문1번가)을 통해 2490명이 참여했다. 최종 순위는 도민심사(20%), 발표심사(60%), 공무원심사(20%) 점수를 합산해 확정했다.

전남도 부문은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3건 등이고, 시군 및 공사 부문은 최우수상 1건, 우수상 4건, 장려상 6건 등이다. 전남도 부문 최우수상은 인구청년정책관의 '전국 최초! 적극해석으로 산후조리 보파리(+)'였다. 이 사례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퇴원 후에 '출산·가정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현행법 '모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했다.

시군 및 공사 부문 최우수상은 강진군의 '지방소멸의 위기 청년에게서 해답을 찾다'가 선정됐다.

이 사례는 빈 집이나 빈 점포를 리모델링해 주거·창업 공간을 청년에게 제공함으로써 청년 인구 유입을 결인한 사례다. 강진군은 빈집 리모델링을 위해 소유주를 직접 만나 적극 설득하고, 청년이 주로 원하는 창업 업종을 반영해 추진했다. 청년 점포가 활성화되면서 인접 상가도 더불어 활기를 찾음에 따라 강진이 더 젊어지고 활기차겠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기홍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우수사례를 전 부서, 시군이 공유해 실제로 도민 삶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무료상담 '마을세무사' 활성화 나서

권역별 운영방안 토론회

67명 재능기부로 맞춤형 서비스

전남도가 도민의 세금상담을 도와주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와 시군 마을세무사가 함께 모여 동부권과 서부권에서 각각 운영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도와 시군, 광주·전남 지방세무사회 협력사업이다. 2016년부터 시작, 시군에서 위촉한 세무사 67명의 재능기부로 국세와 지방세 세무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도 주관으로 동부권 8개 시군과 서부권 14개 시군으로 나눠 이뤄졌고, 시군 마을세무사 67명과 시군 세무담당 팀장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마을세무사 제도 등에 대한 다양

한 홍보방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등 대면 현장상담 기회 확대, 세무상담 수요자 실태 조사를 통한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 등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과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전남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마을세무사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주요 상담사례를 도 및 시군 누리집에 게시해 도민에게 공유할 방침이다.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마을세무사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우수 마을세무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홍재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마을세무사 제도의 취지를 살려 도민의 세금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통장을 통한 주민밀착형 안내 등 다각적인 매체를 동원해 도민홍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대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